



스페인 교우회 창립 7월 5일 마드리드에서

스페인교우회가 오랜 준비기간을 마치고 마침내 7월 5일 스페인의 수도 마드리드에서 공식 출범을 하였다.

스페인에는 거주 교우들보다는 주재원과 유학생 교우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그동안 개인적인 만남을 통한 교우모임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이러한 소모임 형태의 만남에서 교우회 결성에 관한 이야기가 오갔으나, 적극적인 교우회 창립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 지난해부터 유럽총연합회의 적극적인 안내와 지원에 힘입어 스페인교우회를 정식 결성 그 첫 발을 내딛게 되었다.

이번 스페인교우회 결성에는 김진(경영 79, 현대자동차 법

인장), 권석주(경제 84, GS건설 법인장), 이기욱(서문 84, 대한항공 지점장), 한변모(경영 86, 현대모비스법인장) 등 현지법인 법인장들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

7월 5일 결성식 모임에 참석한 교우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공식적으로 교우회 이름으로 모이니 너무 좋다” 며 스페인교우회 출범을 자축하였다.

특히 이름도 ‘준현’으로 서로 같은 조준현(서문 92)과 윤준현(노문 93) 교우는 학창시절 모교 야구동호회에서 함께 활동하였는데, 졸업 후 10여년 만에 뜻밖에 이곳에서 다시 만나게 됐다며 기쁨을 감추지 못하였다.

결성식에 참석한 교우들은 스페인교우회 초대회장으로 이기욱(서문 84)교우를, 총무로는 최숙영(서문 98)교우를 선출하고, 비록 늦게 결성된 교우회이지만 활동에서만큼은 앞서가는 교우회가 되자며 앞으로 스페인교우회 발전을 위해 다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하였다.

이기욱 회장은 스페인교우회가 우선적으로 마드리드 교우 중심으로 결성되었는데, 앞으로 바르셀로나, 라스팔마스 등 한국인이 많이 활동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교우찾기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였다.

이와 더불어 유럽총연합회와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유럽 및 유럽총연 산하 각국 교우회와의 교류에도 힘쓸 것임을 밝혔다.

스페인 교우회가 출범합니다

자랑스런 고대 유럽, 중동,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초대 고대 스페인교우회장을 맡게된 서문학과 84학번 이기욱입니다.

여러면으로 부족한 점이 많으나 교우 여러분의 후원을 든든하게 생각하며 모교에 대한 사랑과 자부심을 바탕으로 우리 고대 교우들이 서로 의지하며 선배님들이 쌓아온 전통을 계승 발전시켜 태양과 정열의 나라 스페인에서 고대 교우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스페인은 인구 4천7백만의 유럽 5대 강국이며, 역사적으로 과거에는 ‘해가 지지 않는 대제국’을 건설하기도 하였으며, 이곳 한인 사회는 주로 1980년경 라스팔마스 원양어선 기지를 중심으로 한 선원 및 태권도 사범들의 移民史를 통하여 형성 되었습니다.

재스페인 고대 교우는 최근 한국 주요 대기업의 스페인 진출 확대에 따라 지상사 주재원으로 마드리드 지역에 10여분들이 계시나, 현지 교민으로 알려지지 않은 교우 분들이 더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따라서 올 한 해는 최후의 1인까지도 찾아내겠다는 각오로 진력을 다하여 스페인내 우리 고대 교우 여러분들을 찾아내는 이산가족찾기 운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이제 걸음마를 시작한 신생 고대 스페인교우회이지만, 앞으로는 교우들의 화합과 교류 증진을 통하여 한가족 같은 우의를 다지며, 밖으로는 민족고대 100년의 자긍심을 잊지 않고 각자의 위치에서 존경받는 고대인이 될 수 있도록 서로 지원하고 이끌어주는 교우회 전통을 세우겠습니다.

(2면으로 이어집니다)



이기욱 스페인 교우회장

스페인교우회의 창립을 축하합니다



독일

2012 고연골프대회 개최

독일교우회(회장 이유향, 독문 80)는 7월 7일 프랑크푸르트 인근에서 2012년 정기 고연골프대회를 개최하였다. 고대 11명, 연대 9명 총 20명이 5개 조로 나누어 진행된 이번 대회에서는 고대팀은 5연승의 문턱에서 아쉽게 주저앉고 말았다.

연대에서는 티칭프로인 동문까지 참가하여 4연패를 끊고자 하는 대단한 열의를 보여 주면서 양팀간 박진감 넘치는 대결이 진행되었다.

고대에서는 김순근(무역 84) 교우가 78타를 쳐서 연대측 티칭프로를 꺾고 Medalist를 차지하여 아쉬움 속에서도 작은 위안거리가 되었다.

하계 야유회 행사 가져
한편 6월 23일에는 프랑크

푸르트 동부에 있는 Heinrich Kraft Park에서 교우 및 가족, 유학생, 교환학생 등 약 40명이 참가한 하계 야유회 행사를 가졌다.

화창한 날씨 속에서 바비큐 파티와 스포츠 활동을 통해 교우 간에 우의와 친목을 다질 수 있는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날은 독일에 새로 부임한 교우들과 교환학생들이 많이 참석하여 행사의 취지를 더욱 빛내 주었다.



터키

교우회장배 골프대회 개최

터키 교우회(회장 김성렬, 독문 73)는 6월 3일 제2회 교우회장배 골프대회를 개최하여 교우들간의 우의를 다졌다.

8명의 교우가 참가하여, 각 4명씩 A, B팀으로 나눠 신페리오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대회에서 김성렬, 김용석, 천민철, 홍승현 교우로 구성된 A팀이 홍승현 교우가 -7의 성적을 기록한데 힘입어 4타차로 B팀을 이겨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A팀이 승리하였다.

대회를 마친 뒤 김성렬회장의 초청 형식으로 회식이 진행되었으며, 대회 경비는 경기에서 패한 B팀의 대표 장원신교우가 후원하였다.



프랑스

주요 포스트에 교우 진출 늘어

최근 유럽총연합회 프랑스 지부에는 교우들의 요직 진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특히 지난 5월에는 외환은행 파리지점장에 송광호(불문 87) 교우가 부임하였으며, 최근에는 수출보험공사 파리지사장으로 장만익(영문 87) 교우가 부임하는 등 파리의 주요 포스트에 교우들의 진

출이 눈에 띄게 늘었다. 프랑스 교우회 김재호 회장(법학 80)은 “프랑스에 교우들의 진출이 확대되는 것은 교우들의 사회적 성취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고대 교우들의 국제화 수준이 높아지는 데 따른 것”이라고 평가하고, “프랑스에서 교우들이 더 많은 사회적, 직업적 성취를 거둘 수 있도록 교우간의 유대와 친목을 강화하는데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였다.

폴란드

상반기 마감 공식행사 가져

지난 1월 김정환 회장(행정 73) 자택에서 신년행사를 가진 이후 올해 들어 공식적인 행사를 가지지 못하였는데, 6월 30일에 새로이 폴란드 생활을 시작한 교우들과의 공식 인사자리를 마련할 겸 상반기를 마감하는 공식 모임을 가졌다.

임정훈(지공 87) 교우는 Halliburton 이라는 탐사회사의 폴란드지사에서 5월초부터 근무를 시작하였고, 윤지명(산공 03) 교우는 폴란드

부인과의 한국 생활을 마감하고 폴란드에서 새 출발을 하게 되었는데, 2000년대 학번의 첫 합류인이라 많은 관심과 격려를 받았다.

이번 모임은 1차로 골프 라운딩을 한 후 저녁 식사를 하면서 오랜만에 서로의 근황에 대해 나누었는데, 삼성전자에 근무하는 북정수(산공 88) 교우가 부장으로 승진을 하여 조만간 이를 축하하는 모임을 갖기로 하였다.

새로운 교우들의 합류와 개인들의 기쁜 일들을 빌어서 개인적인 만남 외에 공식적인 모임이 좀 더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우동정

- ▲ 이기수(법학 65) 교우 : 이기수 유럽총연 교문이 7월 14일 손병두 KBS이사장, 이용배 국가브랜드위원장, 정정길 전 대통령 비서실장 및 박성훈(상학 66) 재능교육 회장 등 일행과 함께 프랑크푸르트를 방문하여 양해경 유럽총연 회장과 오찬을 하였다.
- ▲ 김성렬(독문 73) 교우 : 터키교우회 김성렬 회장이 6월 1일자로 터키한인회 회장직을 마쳤다. 임기중 왕성한 활동으로 한인사회에 큰 업적을 남겼으며, 이명박 대통령 방문시에는 전체 교민을 대표하여 환영사를 한바 있다.
- ▲ 김진(경영 79) 교우 : 현대자동차 스페인법인장으로, 유럽 경기가 어려운 가운데, 뛰어난 판매 실적으로 유럽 시장의 견인차 구실을 하고 있다. 김진 교우는 인도에서 근무하다가 2011년 초 스페인법인장으로 부임했다.
- ▲ 윤여봉(경영 82) 교우 : 제 2의 중동 붐을 일으키고 있는 사우디에서 건설 수주에 많은 활약을 하고 있는 윤여봉 교우는 중동 전문가로 중동 지역에서 두루 근무하다가 최근 삼성물산 사우디 지점장으로 부임하였다.
- ▲ 차두리(신방 99) 교우 : 영국 프리미어리그 셀틱에서 활동하던 차두리 교우가 독일 뒤셀도르프로 옮겨 분데스리가에서 활동하게 되었다. 차두리 교우는 프랑크푸르트, 마인츠, 코블렌츠 팀 등에서도 활동한 바 있다.

스페인 교우회가 출범합니다

(1면에서 이어집니다)
지난 7월 5일 마드리드의 작은 식당에서 9명의 선배들이 모여 아주 조촐한 첫 교우회 모임을 가졌으나, 서로 친한 교우의 정을 느낄 수 있는 자리였으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스페인에서 존경받을 자격이 있으신 분들이기에 서로 간에 큰 자부심과 스페인 교우회 발전을 확신하는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어디에선가 읽은 ‘SKY 대학의 동창회가 끝날 때의 특징’이라는 글이 생각납니다. 동창회가 끝나고 서로 인사 후 뒤

도 돌아보지 않고 가는 것이 서울대 동창회이며, 택시 태워주고 몇 번이고 뒤돌아보며 정겨움을 표시하는 것이 연대 동문회라면, 쉽게 작별하지 않고 ‘한 잔 더’ 또는 ‘너희들 먼저가’ 라는 스타일이 고대 교우회라고 합니다. 이번 첫 모임에서도 마찬가지로 아무도 집에 갈 생각을 하지 않더군요... 고대 교우의情有 많이 목말랐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대 스페인교우회 설립에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유럽총연합회 양해경 회장님과 양원목 대외협력위

원장님 및 교우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스페인교우회 명단

- 김진(경영 79) 권석주(경제 84)
- 이기욱(서문 84) 한변호(경영 86)
- 노원일(서문 88) 장인주(신방 90)
- 조준현(서문 92) 윤준현(노문 93)
- 이현희(기계 94) 최숙영(서문 98)
- 한태정(서문 98) 정승완(전자 99)
- 이승미(서문 07)

연락처

회장: 이기욱 (kiwlee@koreanair.com)
총무: 최숙영 (cesped@hanmail.net)



김상욱 (국문 86)

유럽총연합회는 유럽, 아프리카, 중동, 중앙아시아 교우들을 잇는 징검다리가 되고 이들 교우간의 교류를 위하여 '교우 릴레이' 를 벌이고 있다. 교우 릴레이는 글의 내용에 구애받지 않으며 자유롭게 유럽총연합회 교우들에게 소식을 전하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독일의 김인홍 교수, 영국의 임시창 교수, 프랑스의 신근수 교수, 러시아의 이세훈 교수, 스웨덴의 유명연 교수, 오트리아의 김신자 교수, 터키의 김성렬 교수, 남아공의 민경준 교수, 쿠웨이트의 박정길 교수, 의정부 지검 검사 우남준 교수, 프랑스의 서정호 교수, 독일의 박돈희 교수, 네덜란드의 김영원 교수, 프랑스의 김재호 교수, 우크라이나의 박승현 교수, 전 독일교우회장 오상덕 교수, 나이지리아의 정병훈 교수, 모교 교수 김세원 교수, 헝가리 교우회장 이상일 교수, 행사부 기획조정실장 정재근 교수, 페루 교우회장 김태원 교수, 사우디아라비아의 백재현 교수에 이어 카자흐스탄교우회장인 김상욱 교수가 바톤을 이어 받았다. 김 교수는 1995년 카자흐스탄에 정착하여 한인신문을 발행하는 등 한인사회를 위하여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교우 릴레이 (23)

카자흐스탄에서 꾸는 꿈

며칠 전, 지인들과 골프를 마친 후 식사를 하는 자리가 있었다. 이 자리에서 20년 가까이 전력 인프라 관련 국제 수주공사 현장을 누빈 한 엔지니어가 “현재 공사중인 알마티시 외에도 아스타나와 기타 도시들의 전력선 지중화 공사발주가 예상된다” 며 “이를 통해 카자흐스탄의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또 이를 확신하는 카자흐인들의 자신감을 느낀다” 고 말해 동석했던 이들의 주목을 받았고 부임한지 넉 달이 채 안된 그의 색다른 분석에 의한 ‘카자흐스탄의 경제성장’에 대한 확신’에 다들 고개를 끄덕였던 기억이 난다.

우리나라에서는 경기 급냉을 막기 위해 대통령과 각 부처 장관 그리고 민간 경제단체장들까지 모여 마라톤회의를 하는데, 카자흐스탄은 과연 어떤 나라이기에 지속적인 성장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까? 카자흐스탄은 이미 알려진 대로, 구소련권 국가들 중에서 러시아와 함께 대표적인 자원부국으로 알려져 있다. 카스피해 연안에 매장되어 있는 원유 개발을 위해 셰브론, BP 을 비롯하여 세계적인 석유메이저들이 진출해 있을 뿐만 아니라 텡스텐(매장량 세계 1위), 우라늄(매장량 세계 2위)과 희토류 등 세계에서 9번째로 넓은 국토를 가진 카자흐스탄의 땅속에는 이러한 자원들이 매장되어 있다.

실제로 지난 5월 IMF에서 내놓은 카자흐스탄에 대한 경제 분석 보고서를 보면, 상반기 실질GDP 성장률은 5.6%를 기록했고 에너지 부문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경제를 다변화시키는 카자흐 정부의 목표를 지지했으며 국가기금(NFRK)의 일부 자원을 비석

유 분야의 경제를 발전시키는데 투자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특히, 오일달러를 즉각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비자원분야의 산업발전을 위해 각종 펀드를 조성하여 경제를 발전시키려고 하는 정부 정책기조를 높이 평가하였다.

한-카 관계에서도 올 하반기에는 40억 달러 규모의 발하쉬 발전소 공사의 시작을 알리는 착공식이 예정되어 있고, 아틸라우 석유화학단지 프로젝트도 막바지 조율을 하고 있다. 포스코 건설은 알마티 근교의 대규모 위성도시 건설을 위한 G4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오는 9월에는 우리나라 대통령의 재임기간 중 유일하게 세 번을 방문하는 기록을 이 곳 카자흐스탄에서 세울 가능성이 농후하다.

우리 삶의 원형질을 찾아서...

유럽총련의 뉴스레터 중 가장 재밌게 읽는 교우 릴레이의 지면을 카자흐스탄에 대한 자랑으로 시작하고 보니 내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줄여야겠다.

17년 전 ‘우리 삶의 원형질을 찾아서...’ 라는 나름 거창한 포부를 가지고 찾은 곳이 바로 카자흐스탄이다.

당시 대학원생이었던 나는 모

스크바 유학을 준비 중이었는데, 그때 마침 학교로 날라온 한 장의 팩스가 있었으니(이 대목에서는 신과조로 읽어야 제맛). 거기엔 카자흐스탄알마티 국립대학교 한국어과 교수 파견 공고가 있었다.

당시 신혼이었던 나는 일단 응모를 한 후 아내에게 이 사실을 비밀에 붙였다. 혹시 탈락될 수도 있는데 미리 알리기 보다는 합격 후 알려도 무방하겠다 싶어... 그러나 당시 모 대학의 박물관 학예연구원직을 겸하고 있던 터라 주변 분들에게 쏘련 땅으로 가게 될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는데, “해외에서 고생하지 말고 국내 학위로 끝내라” 고 충고해주는 분들도 계셨고, “휴직을 하고 가라” 는 등 내가 싱글이 아니고 가정을 가졌기 때문에 외국 땅에서 공부를 하는 게 쉽지 않을 것임을 미리 알고 많은 충고들을 해주셨다.

며칠 뒤 필기, 면접의 결과가 나왔고 간단한 현지 훈련과정이 있음을 통보 받았을 때 비로소 아내에게 이 사실을 통보했다. 그날 아내는 눈물로 밤을 지새웠고 나는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 싶다는 말로 아내를 설득한 끝에 유라시아의 한복판, 카자흐스탄에 오게 되었다.

국제협력단(KOICA)를 통한 파견된 것이기 때문에 대사관 직원들의 편의 제공과 고려인 동포들의 환대 덕분에 비교적 어려움을 모르고 시작한 카자흐스탄 생활은 이후 알마티국립대학교에서 3년, 카자흐스탄국립대학교

에서 3년 도합 6년 동안 대학 교수생활을 하였고 내 공부도 마쳤다.

이때쯤 나는 또 한번의 사고를 쳤다. 대학재학 중 고대신문사의 기자로서 신문의 ‘신’ 자만 봐도 지켜볼 정도로 신문



‘카자흐스탄’ 특별사진전 입구에서 포즈를 취한 김 교수

과 함께 살았던 내가 동포신문을 만들기 위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것이었다.

한국어를 가르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방향으로 확장된 측면도 있지만 무모할 정도로 도전정신이 강한(좋게 표현하면) 내가 또 하나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나선 것이었다.

이때는 아내가 둘째를 낳은 직후라서 제 몸 추스러기도 힘든 상황이었는데도 순순히 내 의견을 따라 주었다. 뿐만 아니라 무급으로 신문 편집까지 도맡아 해주었다.(아내는 대학학보사의 학생기자, KBS 작가 등의 경력이 있다) 이렇게 해서 나는 신문 발행인이라는 명함을 추가로 갖게 되었다.

그 후 1년쯤인가 지났을 때 난 또 하나의 사고를 쳤다. 바로 KIC(Kazakhstan Information Center)를 열고 카자흐스탄을 방문, 진출하는 개인이나 기업들에게 현지 문화와 정보를 무료로 제공하기 시작했다.

15평 남짓 되는 편집실은 진출 기업과 교민들의 사랑방이 되었고 아내는 집과 사무실을 오가며 살림과 신문편집에 더해 내방객들에게 커피를 내오는 일까지 하게 되었다. 덕분에 나는 영화 ‘홍반장’의 주인공 공처럼 ‘알마티 홍반장’이라는 별명을 갖게 되었다.

현지 교통경찰의 단속에 걸렸다고 러시아말로 상황을 설명해 줄 수 있겠냐는 부탁에서부터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내용 확인을 요청하는 것까지 한마디로 한국에서 처음 와서 현지 물정에 어두운 분들의 대부분이 우리 사무실을 찾았다.

이렇게 하기를 2년 정도. 주변의 권고에 따라 KIC의 모든 서비스를 유료화시키고 이를 위해 별도의 회사를 설립하게 되었다. 이것이 지금 내가 대표이사 맡고 있는 CAM L.L.P이라는 회사이다.

2005년부터 시작된 CAM은 단순 컨설팅 뿐만 아니라 은행과 보험회사 등 국내금융기관의 현지 진출, 국내 대기업 건설사들의 현지 진출에도 자문을 하였고 문화행사, 전시 기획 등의 업무로까지 확대되어, 대

통령 방문 문화행사, 한국전통 문화공연, 한국영화제 등 수많은 행사를 기획, 진행하였다.

오늘도 도전은 계속된다

나는 최근 또 하나의 도전을 시작했다. 바로 내가 17년 전에 가졌던 한국에 관한 최고의 인재를 길러내는 한국학 대학원 설립이라는 꿈을 실현하기 위한 도전이다.

우리기업들의 현지진출을 더욱 용이하게 만들고 양국간의 관계를 성숙시키는데 필수적인 통번역, 지역 전문가들을 키워내는 한국학 대학원의 설립은 한-카 수교 20주년을 맞은 올해, 향후 20년, 200년을 위해 준비되어 져야 하는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도전과는 질적으로 다른 이 도전은 5년 아니 10년이 걸릴 지도 모르지만 나는 이 꿈을 이루기 위해 오늘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

▲ 카자흐스탄 교우회장



2010년 '카자흐스탄의 해' 를 기념하여 모교에서 가진 김 교수 부부 특별사진전 개막식

정기총회를 회고하며



이진희 (농화학 81)

고대교우회 유럽총연합회 2012년도 정기총회와 제2회 친선체육대회와 정기총회가 열린지도 벌써 40여일이 지났다. 유럽총연합회 전체행사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이곳 네덜란드에서 열리게 되어, 그동안 네덜란드교우들과의 모임만을 가졌던 네덜란드교우회가 유럽 및 중동,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교우들의 중심지로 떠오른 것 같아 우리 네덜란드 교우들에게 큰 기쁨과 자긍심을 가져다주었다.

그러나 행사를 치루고 난 뒤, 유럽총연합회 전체행사의 위상에 걸맞게 잘 준비를 하지 못한 것 같아 참석 교우들에게 죄송한 마음도 들어 앞으로 더욱 분발해야겠다는 다짐도 하였다.

지난해 네덜란드에서 유럽총연합회 체육대회를 개최한다는 소식을 받고는 네덜란드 교우들은 사실 많이 당황하였고, “과연 우리가 이 큰 행사

를 치러낼 수 있을까?” 라는 걱정이 앞서 어떻게 준비를 했는지도 모른 채 행사당일을 맞았다.

올해에는 이른 날짜에 행사 개최를 연락받았고, 지난해의 경험도 있고 해서, 조금 수월하게 준비를 할 수가 있겠다고 생각을 하였지만 막상 준비에 들어가니 크고 작은 과제들로 마음만 바쁘고 허둥대다 행사를 맞이한 것만 같다.

네덜란드에서 체육대회를 하면 늘 날씨가 문제가 되곤 한다. 네덜란드 특유의 변화무쌍한 날씨는 지난해에는 비가 내려 그리고 올해에는 강한 바람으로 참가자들에게 어려움을 안겨주었는데, 이것도 주관교우회의 세심한 배려(?)가 아닌가 하는 타 국가 교우들의 의심의 눈초리에 네덜란드 교우들을 몸둘 바 모르게 했다.

그러나 모이던 언제나 즐겁고 매 순간 교우들의 깊은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교우회의 특징이 이번에도 유감없이 발휘되어, 미흡한 준비에도 참가 교우들이 즐겁고 유쾌하고 성공적인 행사였다고 고마움을 표해 네덜란드 교우들에게 큰 위안이 되었다.

이번 행사 준비과정에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김중식 부



네덜란드에서 개최된 2012년도 유럽총연합회 정기총회

회장이 큰 역할을 한 것에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또한 행사준비 처음부터 행사가 끝나는 순간까지 노심초사 염려의 끈을 놓지 않고 세심하게 이것저것 챙겨주신 최태순 선배님께도 깊은 존경과 고마움을 전한다.

1박 2일로 치러진 이번 체육대회와 정기총회는 유럽총연합회 교우들에게 다시금 진한 교우애를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다고 확신한다.

영국, 프랑스, 독일, 벨기에

그리고 멀리 터키에서 참가한 교우들이 이튿날 새벽까지 자리를 떠나지 않고 즐거운 이야기, 어깨 걸고 목이 쉬도록 부른 응원가, 학창시절을 되돌아보게 한 막걸리, 그리고 끊임없이 이어지는 각국 교우들의 활동상 등, “만나기는 쉬워도 헤어지는 것은 어려운” 고대 교우들의 정이 이번에도 유감없이 발휘되어 참석자들의 마음에 큰 울림을 주었다.

이렇듯 성공적인 행사를 치른 데에는 양해경 유럽총연합회 회장님과 임원들의 수고도 빼놓을 수가 없다. 아무리 불가

능을 가능케 한다는 고대 교우회라고 하지만, 유럽총연합회의 활동을 보면 그저 놀라울 뿐이다.

유럽총연합회가 출범한지도 벌써 3년. 길다고 할 수 없는 3년의 시간에 이렇듯 유럽과 중동,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교우들의 마음의 고향으로 자리 잡은 유럽총연합회가 있어 우리 교우들은 행복하다.

바라기는 앞으로 유럽총연합회가 오래 존속되어 모교발전에 이바지함은 물론이고, 교우들의 교류에 영원한 중심이 되기를 빌어본다.

▲ 네덜란드 교우회장

만나기는 쉬워도, 헤어지는 것은 어려워

이영기 자문위원 ‘남북분단과 통일’ 강연



이영기(정외 54)

고대교우회 유럽총연합회 자문위원인 이영기(정외54) 교우가 7월 21일 독일 함부르크에서 한반도 통일관련 ‘남북분단과 통일’이라는 제목으로 강연회를 가졌다. 이번 강연회는 함부르크 기독교봉사국의 요청으로 이루어졌다.

이영기 교우는 먼저 “왜 남북으로 분단되어야 했는가?”라는 분단의 원인을 고찰하며 강연을 시작하였다. 독일 분단은 2차 대전 후, 국제정치상 힘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180도 상이한 이데올로기를 가진 미.소 냉전의 부산물이지만 한국분단의 원인은 독재자 스탈린의 팽창정책과 미국의 정치현황에서 찾을 수 있다고 이영기교우는 그 성격을 규정한 전

제하였다.

여기서 구소련의 팽창정책이란 사회주의의 단계가 지나고 공산주의 세계혁명단계가 도래했다는 판단, 전통적 러시아의 제국주의, 서방세계에 대한 불신, 이데올로기적 측면에서 제국주의와 사회주의 간에 타협할 수 없는 대립 등을 말하고 있다.

또한 이영기교우는 한반도분단에 있어, 한반도 신탁 통치안, 소련의 참전대가로 동북아에서 소련의 팽창정책을 도운 것, 그리고 사전 준비 없는 미군정 실시 등을 미국의 실책이라 지적하였다.

이날 강연에서 이영기교우는 1948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선택 6.25 전쟁과 1953년부터 2012년까지 고착화 된 남북분단의 현상과 한국전쟁 이후 대한민국 정부의 분단극복정책과 통일의 준비의 필요성을 중점적으로 재조명하였다.

그동안 남북간의 협정으로는 7.4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선언, 10.4선언이 있었는데, 1972년의 남북한 7.4공동성명은 자유, 평화, 민족대단결이라는 통일 원칙을 양측이 합

의한 것이었으나, 북한의 일방적인 중단으로 파행을 맞게 되었고, 가장 체계적이고 합리적이라 평가받는 1992년의 남북기본합의서는 20년이 넘는 오늘날까지 북한에 의해 지켜지지 않고 있다.

한편 6.15선언과 10.4선언은 대한민국에 현 정부가 들어선 후, 급속히 경색된 남북관계로 인해 그 제반 조항들을 실천하지 못하고 교착상태에 머무르고 있다.

한편 1990년경부터 탈북자가 발생하게 되었으며, 북한은 극심한 경제난을 겪게 되어 개성공단, 금강산관광사업, 개인 혹은 단체의 북한방문 등을 통해 경제난을 해소하고자 하였으며, 간헐적으로 실시한 금강산 면회소에서의 이산가족상봉등을 통해 이벤트성 남북관계를 지속하고 있다.

이어 ‘북한의 개혁. 개방과 핵문제’에 대해 이영기교우는 북한은 절대로 개혁. 개방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 개혁과 개방은 북한체제의 붕괴를 의미하기 때문에 북한체제유지를 위한 마지막 보루인 ‘핵’ 역시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내



1989년 10월 빌리 브란트와 함께

다보았다.

이영기교우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남북관계와 한반도의 근본적 문제를 풀기 위해 중대한 책임감과 강력한 목표의식을 가질 때가 되었다며, 이제 통일을 위한 구체적 준비를 다져나가야 할 시기임을 강조하였다.

이영기 교우는 현상유지적 평화관리가 아니라 현상극복적 통일 비전의 전개와 실천을 위해서는 먼저 그 전제조건으로 안보의 강화. 적극적인 평화 공세, 그리고 통일 교육이 강화되어야 함을 들었다.

이와 더불어 통일을 위한 3대 준비 과제로 통일 비용조성, 통

일 후 북한관리를 위한 인적자원 양성, 그리고 통일 교육 실시를 제시하며 이날 강연을 마쳤다.

한국내에서 독일통일문제의 전문가로서 자리잡고 한국 통일문제에서도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하고 있는 이영기교우는 모교 정외과 졸업 후 독일로 유학, 함부르크 대학에서 정치학 석사, 베를린 자유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동아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한 바 있다. 이후 명지대 북한학과 객원교수와 명지대 유럽연구센터의 소장을 거쳐 현재 모교 북한학과 초빙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 유럽총연 자문위원